

# 요리조리 털리는 국가 보조금

지원금 횡령 정황 포착 한노총 광주본부 압수수색

축사현대화 허위 서류 공무원·축산업자 5명 입건

가족을 근무자 등록 돈 태낸 어린이집 원장 구속

'나랏돈'을 제 호주머니 돈으로 여기고 빼먹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혈세 빼돌려 제 배를 불린 어린이집, 영농조합, 수산물가공시설 업자 등이 '연중행사'처럼 수사 당국에 적발되고 있다. 예산 부족 탓만 할 아니라 줄줄 새는 혈세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2개 거래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계장부,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

다.

이날 압수수색은 광주본부가 수년에 걸쳐 광주시·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빼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뤄졌다. 대표적인 노동 단체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공무원 박씨가 현대화 사업

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계장부,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

(46)·강모(60)씨 등 축산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건설업자 김모(43)씨와 브로커 김모(46)씨를, 이를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장성군 6급 공무원 박모(46)씨를 각각 입건했다.

심씨와 강씨는 건설업자 김씨와 짜고 2010~11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할 것처럼 꾸며 7억원을 받았고 지역 한우 협회 간부인 강씨는 공사액을 2배가량 부풀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공무원 박씨가 현대화 사업

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계장부,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

수령을 듣고 전체 액수의 15% 가량을 쟁긴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족들을 허위로 어린이집 근무자로 등록하고 일반 급식을 제공하면서 친환경 급식비로 과다 책정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화순 A 어린이집 원장 김모(40)씨를 구속했다.

전남도도 최근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감사를 벌여 124건을 적발하고 잘못 지급된 보조금 43억4000여만원을 회수 또는 시정 요구하는 등 허술한 보조금 지급·관리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김자율기자 dok2000@k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angju.co.kr

## 23호 태풍 '피토'

한반도 상륙하나?

### 계속 북상땐 5~6일께 영향

올해 스물세 번째 태풍 '피토'(FIL-TOW)'가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기상청 국기태풍센터에 따르면 제23호 태풍 피토가 전날 밤 9시께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다. 피토는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것으로 끝 이름이다.

통상 10월에는 북태평양 고압이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물러나 그 가

장자리를 따라 태풍이 일본 동쪽 해

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올해는 가을로 넘어가는 전환기에도 태풍 주변 기압계의 패턴이 예년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태풍이 계속 북상한다면 오는 5~6일께 우리 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피토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중심기압 992헥토파스칼(hPa)에 최대풍속 초속 22m, 강풍 반경 280km의 악하고 작은 태풍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는 태풍이

중국 쪽으로 서진할 가능성보다 우리

나라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면

서도 "4일 이후 태풍의 진로와 강도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오늘 날씨

해금 06시 28분 해금 18시 15분

달금 03시 31분 달금 16시 27분

### 완연한 가을

대부분 맑은 가운데 바람 강하게 부는 곳 있겠다.

광주	맑음	19/25 C
목포	맑음	18/23 C
여수	맑음	19/25 C
나주	맑음	18/24 C
완도	맑음	19/25 C
구례	맑음	18/25 C
강진	맑음	19/24 C
해남	맑음	19/25 C
장흥	맑음	17/24 C
순천	맑음	18/24 C
영광	맑음	19/23 C
진도	맑음	19/26 C
전주	맑음	18/22 C
군산	맑음	19/24 C
남원	맑음	18/21 C
흑산도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서해	남부 일비단	북서~북	0.5m	자외선지수 뇌졸증지수
	만비단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일비단	북~북동	0.5~1.0m	
	만비단	북~북동	0.5~1.5m	경고 보통 보통

〈오후〉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단	북서~북	1.0~2.5m	00:03 05:44
	만비단	북서~북	2.0~4.0m	02:20 17:51
남해	서부 일비단	북서~북	0.5~1.5m	07:25 01:16
	만비단	북서~북	1.5~2.5m	19:38 13:22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날씨 13/22 11/24 14/25 15/25 17/24 18/25

## 광주·전남 고교 매점 상당수 수의계약

임대수익, 입찰보다 최대 5배나 줄어

### 민주 유은혜 의원 주장

광주·전남지역 고교 매점의 경우 입대계약 3건 중 1건이 수의계약에 의해 운영됐거나 운영되고 있다.

광주는 총 60건의 입대계약 중 13

건(21.7%)이, 전남은 53건 중 25건

(47.2%)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학교매점

임대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고교 매점의 경우 입

대계약 3건 중 1건이 수의계약에 의

해 운영됐거나 운영되고 있다.

광주는 총 60건의 입대계약 중 13

건(21.7%)이, 전남은 53건 중 25건

(47.2%)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문제는 수의계약을 하면 입찰계약

보다 임대수익이 크게는 5배나 줄어

든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고교 매점 중 수의계약을

체결한 매점들의 평균 계약금액은

783만원인데 반해 입찰계약을 맺은

매점들의 평균 계약금액은 3913만원

으로 무려 3130만원(5배) 차이가 났다.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수의

계약 학교가 1056명, 입찰계약 학교가

1181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남은 수의계약 매점(910만원)

입찰계약(1597만원) 매점보다 임대

수익이 687만원(1.8배) 적었다.

유은혜 의원은 "학생들의 주머니

에서 나온 수익이 다시 학생들의 교

육활동이나 복지비로 쓰여질 수 있도

록 학교 매점 임대수익을 직영 또는

입찰 계약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angju.co.kr

## 영암 월출산서 1.7cm 꼬마잠자리 발견

세계에서 가장 작은 꼬마잠자리 <사진>가 영암 월출산에서 발견됐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1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II급 생물이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잠자리인 꼬마잠자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꼬마잠자리는 최근 월출산국립

공원 남생이 서식지 조사 도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 인근

논에서 확인됐다.

다 자란 성충 크기는 1.7cm인 꼬마

잠자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잠자리(10cm)의 5분의 1 크기다.

한 낮에 풀줄기 끝에 물구나무서는 것처

럼 배를 하늘 높이 쳐드는 특성이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법원장이 부친 파전 맛있네"

#### 광주지법 앞마당 '소통 법문화축제'

명예법관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

법원과 시민의 소통을 위한 이색 축제가 벌어졌다. 광주지법은 1일 조선 선조 당시 판결서 등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앞마당에는 바자회·먹거리 장터·가훈 써주기 등의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을 맞았다. 이

날에도 명예법관 행사, 법원 가족과의 대화, 사인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